

농구로 고창에
사람을 모았습니다

5년 동안 7번의 대회, 누적 방문 약 1,500명, 10년째 이어진 대학팀 여름 합숙.
이제 이 흐름을 '고창 농구 여행'이라는 군의 자산으로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실적부터 제안까지, 네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실적	농구로 고창에 사람을 모아온 10년의 기록
02	기회	군의 정책 방향, 그리고 아직 공개된 적 없는 동호인 방문 데이터
03	계획	팀 단위 주말 방문 프로그램 '고창 농구 여행'
04	요청	시범사업 공동 추진, 그리고 세 가지 행정 지원

01

농구로 고창에 사람을 모아왔습니다

실적 · TRACK RECORD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해온 고창 사람입니다

04 / 21

뿌리

고창초·중·고 졸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중앙농구동아리 주장

커리어

샌드박스네트워크 유튜브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오비맥주 인플루언서 마케팅 · **무신사** 콘텐츠 기획

IT·AI 스타트업 다수, 신사업·프로덕트 매니저

지금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일을 업으로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고향 고창에 씁니다

고창군농구협회 소속 · 동리(THE ONLY) 대표

10년째 고창으로 사람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05 / 21

2016~

고려대 중앙농구동아리 여름 합숙, 고창 유치.

동아리 주장으로 처음 유치한 뒤 후배들이 이어와 10년째.
매년 여름 약 1주일, 25~30명 체류.

2020

서울시 넥스트로컬 2기, 고창 농부 프로젝트로 선정.

고창 청년 농부 인터뷰집 『농부를 담다』 + 고창 농산물 연계 판매.

2022~

고창 동리배 농구대회 5년째 운영, 누적 7회.

고창군농구협회 설립을 제안하고 이끌어냈으며,
2024년부터 협회와 공동 주최.

MISSION

“농구대회를 넘어, 고창이 사람들에게서 잊히지 않게 하는 일.
사람을 모으고, 다시 오게 하고, 고창의 관계인구로 남게 하는 일”



2024 고려대학교 농구연구회 전지훈련 · 8.22-25

동리 · 이름의 세 겹

桐里 동리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 선생의 호.
그 후손으로 이름을 걸었습니다.

洞里 동리

여러 집이 모여 사는 마을.

同利 동리

모두의 이익, 공동의 이익.

마을에 사람을 모으고, 그 방문을 모두의 이익으로.

다섯 해 동안, 전국의 농구팀을 고창으로 데려왔습니다

06 / 21

약 **1,500**명

누적 방문 인원 · 2022~2026 상반기 · 7개 대회 총합 · 재참가 중복 포함

5년째 · 7회 2022년 시작,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 7회 · 전국 단위로 확장 중

평균 200명 대회당 평균 참가 10팀 (서울·대전·진주·여수·신안·전주 등)

절반 이상 두 번 이상 참가한 팀의 비율 (역대 참가팀 명단 기준)

1.2만 회 유튜브 「고창 동리배 농구판」 하이라이트 최고 조회수
대회가 끝나도 '고창'이 계속 노출됩니다



제7회 고창 동리배 농구대회 · 2026.3.28-29 · 고창 실내체육관

참가자들은 경기 뒤 관광과 재방문 의향을 남겼습니다

07 / 21

“서울에서 고창으로 눈오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착” ...
“농구 후 석정온천 휴스파” ...
“고천풍천가 본점에서 장어구이와 복분자주” ...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 참여할 의사 2000%”

서울 참가팀 · 제5회 (발췌)

“대회가 끝나고 팀원끼리 관광자원 몇 곳을 돌아보면서
농구대회가 오히려 부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창군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농구대회가 아니더라도 고창에 방문하고 싶을 만큼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전 참가팀 · 제5회

경기 하러 와서 온천과 장어로 이어지는 이 동선을, 주말마다 반복되게 만드는 것이 이번 제안입니다.

02

군이 정한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회 · OPPORTUNITY

고창군은 스포츠로 사람을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09 / 21

//

앞으로도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지훈련 팀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 · 2026년 2월, 동계 전지훈련단 유치 현장에서

전북제일신문 「고창군, '태권도 꿈나무' 열기로 후끈, 글로벌 전지훈련지로 도약」 2026.2.1

정책 근거

「고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제4조는 군수가 매년 유치 실적과 경제효과 분석이 담긴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96호 · 2024.7.1. 개정·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 · 확인된 효과

고창군도 다른 지자체도, 그 효과를 수치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10 / 21

약 **40** 억원

고창군 2024년 상반기 스포츠 방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같은 기간 방문 약 25,000명

대회 19개(전국단위 5·도단위 1·군단위 13) + 전지훈련 16개 팀 · **고창군 자체 발표**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전국단위 등 올 상반기 13개 스포츠대회 유치...4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2024.7.18

다른 지자체도 같은 흐름

강진군

2025년 1~2월 296팀·6,092명 방문, 49.3억 원

경제효과를 **인원수 × 체류일수 × 1인당 1일 소비액**으로
산출해 공개했습니다 (스트레이트뉴스, 2025)

괴산군

2025년 전국대회 42개·전지훈련 53팀, 20억 원 이상

인구감소지역에서 만든 성과입니다 (서울신문 2025.11.3)

기회 · 아직 비어 있는 층

생활체육은 전국 단위로 움직이지만, 고창 동호인의 체류·소비는 따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11 / 21

저변

62.9%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국민생활체육조사 (문체부, 2025)

공식 대회 공급

75개 대회

전국종목별 생활체육대회 · 48개 단체

대한체육회 지원 계획 기준

대규모 이동 사례

2,114명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선수단 참가 신청 ·

경기도체육회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체육회 참가현황 (2026.4)

고창이 처음 만들 수 있는 것

동호인 팀이 얼마나 머물고 어디에서 얼마를 쓰는지,
고창에서 처음 측정해 남기겠습니다

동호인 대회의 팀당·1인당 소비액은 아직 국내 공식 통계가 없고, 스포츠 방문을 전담하는 민관 협력 조직도 전북에 아직 없습니다.

03

자주 오게 만드는 '고창 농구 여행'

계획 · THE PLAN

농구가 방문의 이유가 되고, 1박 2일 체류가 지역소비로 이어집니다

1 경기와 훈련이 방문의 이유가 됩니다

동리배 대회(정기)와 고창 농구 여행(팀 단위 주말), 두 축으로 팀이 고창에 올 명분을 만듭니다.

2 고창에서 하루를 보내게 합니다

체육관 경기·훈련 → 식당·카페·숙소 → 석정온천·선운사·모양성·특산물. 방문이 자연스럽게 소비 동선으로 이어집니다.

3 군에는 데이터가 남습니다

거주지·체류일수·지역업체 이용·재방문 의향이 기록으로 쌓입니다. 스포츠가 만든 방문이 숫자로 남습니다.

대회는 알리고, 여행은 자주 오게 합니다

구분	대회 · 인지도 앵커	고창 농구 여행 · 빈도와 저변
리듬	크게, 드물게	가볍게, 자주
역할	전국 단위로 규모를 키워 '고창 농구'의 이름을 만드는 앵커	대회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어도 여행 가는 마음으로 오는 방문
확장성	운영 부담·참가 문턱으로 횟수 확대에 한계	연중 운영 가능 — 방문 빈도의 원천

2026년 하반기 파일럿을 대회 2회와 농구 여행 10회로 설계했습니다

방문 인원 목표 · 명

동리배 대회



400명 · 2회 × 회당 200명

농구 여행



250명 · 10회 × 회당 25명

개최 횟수 · 2026.7-12

동리배 대회



2회 · 크게, 드물게 (인지도 앵커)

농구 여행



10회 · 가볍게, 자주 (빈도·저변)

합계 약 650명 (목표치)

현재 진행

상품과 예약 체계를 완성해 모집을 시작했고,
2팀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낭만 · 8월 16-17일

실행 예정

진주 제우스 · 8월 22-23일

실행 예정

산식 · 대회 2회 × 200명 + 여행 10회 × 25명 = 650명 (파일럿 목표) · 전 건 방문 기록 + 사후 설문으로 측정

방문·숙박·지역소비를 같은 항목으로 기록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측정

모든 방문 기록 + 종료 후 사후 설문

거주지·체류일수·숙박·지역업체 이용·소비·재방문 의향 (동반자 포함,
대회 기준선과 신규 방문 분리 집계)

산출

인원수 × 체류일수 × 1인당 소비액

강진군이 공개한 경제효과 산출식 그대로

추정

파일럿 직접 지역소비 약 7,600만 원

설문·영수증 기반 추정치이며 산식과 가정을 함께 공개합니다.
실측으로 갱신

보고

조례 제4조의 경제효과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정리해 군에 제출

동리 THE ONLY 고창 생활체육 방문 데이터 리포트

양식 예시 · 모든 수치는 가상

고창 농구 여행 성과 리포트 — 2026년 하반기 (예시)

보고 대상: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 작성: 동리(THE ONLY) · 기준일: 20XX-XX-XX

방문 실적 10회 · 250명 고창 농구 여행 (누적 방문)	체류 1박 2일 전 회차 · 군내 숙박	추정 지역 소비 3,750만 원 아래 산출식 기준	재방문 의향 XX% 사후 설문 (n=XX)
--	------------------------------------	--	--------------------------------------

회차별 방문 기록 (예시)

회차	일자	팀 연고	인원	이용 시설	주요 소비처
1회차	20XX.XX.XX-XX	서울	14명	고창군실내체육관	숙박 · 장어식당 · 석정온천
2회차	20XX.XX.XX-XX	광주	16명	고수체육관	숙박 · 식당 · 카페
3회차	20XX.XX.XX-XX	전주	12명	고창군실내체육관	숙박 · 식당 · 특산물
... (전 회차 기록 계속)					

지역 경제효과 산출

경제효과 = 방문 인원 × 체류일수 × 1인당 1일 소비액 예시: 누적 방문 250명 × 1박 2일 × 1일 소비액 7.5만 원(내부 비용 산출의 1일 환산) = 약 3,750만 원 실제 리포트에는 참가팀 사후 설문의 실지출 응답으로 소비 단가를 보정에 병기합니다.
--

방문팀 거주지 분포 (예시)

수도권	40%
광주·전남	27%
전북 (고창 외)	20%
기타	13%

본 문서는 동리(THE ONLY)가 고창군에 장기 제공할 데이터 리포트의 양식 예시이며, 모든 수치·일자·지명 조항은 가상입니다. 실제 리포트는 회차별 방문 기록 전건과 사후 설문 원자료를 기반으로 분기별 제공됩니다. · 문의: 동리(THE ONLY) 신호전

군이 받게 될 리포트 · 양식 예시

방문·지역 연계·측정 구조는 다른 생활체육 종목에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17 / 21

종목이 바뀌어도 팀을 모으는 방식, 지역 업체와 연결하는 방식, 방문을 기록하는 항목은 그대로 씁니다.
농구에서 확인한 구조를 풋살·축구·배구 등으로 넓혀가고자 합니다.



04

시범사업 하나, 그리고 세 가지 지원

요청 · THE ASK

'생활체육 동호인 방문 시범사업'의 공동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19 / 21

역할 구조

동리가 모집·운영과 데이터 측정을 맡겠습니다. 군에는 아래 세 가지 지원의 가능 범위와 방식을 함께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공공체육시설 사용 협의

실내체육관·고수체육관·성송체육회관 등 복수 시설의 정기 사용을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용 시간·신청 창구·우천 대체를 함께 정하고, 감면 여부는 조례·시설 규정에 따릅니다. (체육진흥 조례 제13조)

2 공개형 지역 파트너 연결

숙박·식당·카페·온천·체험시설이 같은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할인 협의와 참여 수준은 각 운영사가 자율로 정하고, 군에는 참여처 연결과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민관추진위 연계)

3 공공 관광·홍보 접점 연계

확정된 프로그램과 참여처 정보를 군 관광채널·관광안내 접점에 연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게재 가능한 범위에서 관광코스·행사와의 정보 연계도 함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관광진흥 조례 제2977호)

매 단계, 데이터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2026 하반기

파일럿 운영, 누적 방문 약 650명 목표.

동리배 대회 2회와 고창 농구 여행 10회를 운영하고, 전 건을 데이터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2027

성과 기준 충족 시 정례 운영으로 전환하고, 타 종목 1~2개를 시험합니다.

연간 방문 캘린더를 만들고, 파일럿 데이터로 우선순위가 확인된 생활체육 종목에 같은 구조를 적용해 봅니다.

2028~

연간 운영 방식과 역할 협약을 군과 별도로 심의합니다.

일본 미야기현 가쿠다시는 3년짜리 한시 사업으로 만든 스포츠 방문 협의체를, 사업이 끝난 뒤 상설 조직으로 이어갔습니다.
시범사업이 성과를 남기면 갈 수 있는 경로이고, 고창도 그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 회차·누적 방문·숙박률·직접 지역소비·재방문 의향·참여 업체 수를 판단 축으로 삼고,
계속·확대·종료의 임계값은 첫 실무 협의에서 함께 정하겠습니다.

신재효 선생이 판소리를 전했듯, 스포츠로 고창을 전하겠습니다